

국내산 전기 시내버스 보급 가속화한다

- 환경부 차관, 시내버스 운수사 찾아 국내산 전기 시내버스 보급 활성화 논의
- 전기버스·충전 기반시설 실태 점검 및 업계 간담회 개최해 현장 의견 청취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7월 30일 오전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시내버스 운수 업체인 다모아자동차(서울 마포구 소재)를 방문해 전기버스 운행 및 전기버스 충전소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업계 관계자들과 국내산 전기 시내버스 보급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부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대중교통 분야 전동화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현장 점검에 앞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전기버스 보급 현황과 충전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운영 실태를 자세히 점검하는 한편,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내 전기버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에 등록된 전기승합차는 올해(2025년) 6월 누적 기준으로 1만 2,830대이며, 이 가운데 대형버스는 1만 1,329대 수준이다.

전기승합차는 전기버스의 본격적인 도입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보급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전기버스] ('17) 99대 → ('19) 551 → ('21) 1,290 → ('22) 2,074 → ('23) 2,820 → ('24) 3,611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전기 시내버스 확대는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인구가 밀집된 도심지 내 대기질 개선을 통한 민감 계층의 건강 보호 효과도 있다”라면서, “국내에 등록된 약 4만 대* 수준의 시내버스를 국내산 전기 버스로 속도감 있게 전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국토부 통계누리 자동차 등록자료 ('25.6월)

붙임 1. 현장방문 계획.

2. 전기승합차 보급 현황('25.6월 기준). 끝.

담당 부서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담당자	사무관	박재근 (044-201-6881)



□ 개 요

- (시간) '25. 7. 30.(수), 10:30~11:30
- (장소) 다모아자동차(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 117)
- (참석자) 환경부, 다모아자동차, 펌프킨, 현대자동차 관계자 등
 - (환경부) 차관, 대기미래전략과장 등
 - (현대차) 국내SV사업실장, 국내전동화전략팀장 등
 - (다모아자동차) 회장, 사장 등
 - (펌프킨) 대표 등
- (목적) ▲전기버스 운행 및 충전시설 현장 점검, ▲현장의견 청취(간담회)

□ 세부 일정(안)

시간(소요)	내 용	비 고
10:30~10:35 (05')	• 상호 인사	
10:35~10:50 (15')	• 업체별 사업 추진 현황 공유	참석 업체
10:50~11:10 (20')	• 애로사항 청취 및 논의	참석자
11:10~11:30 (20')	• 현장 점검	참석자

※ 시간일정은 현장 상황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붙임 2**전기승합차 보급 현황** ('25.6월 기준)

(단위: 대)

구 분	~'20	'21	'22	'23	'24	'25.6월	누적
소계	1,856	1,290	2,074	2,820	3,611	1,179	12,830
중형	217	181	274	417	250	162	1501
대형	1,639	1,109	1,800	2,403	3,361	1,017	11,329

※ 국토교통부 신규 등록대수 기준